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교회 광고
 - 주일예배는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됩니다.
 - 수요일예배와 토요 새벽기도회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하실 때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10월 18일) 현장 주일예배 안내
 - 1부예배(10시) 플러싱, 롱아일랜드 구역
 - 2부예배(11시 30분) 우드사이드, 베이사이드 구역
 개인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시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일예배, 토요 새벽기도회 안내
 - 이번 주부터 수요일예배와 토요새벽기도회를 유튜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 수요일예배(수요일 저녁 8시) 토요새벽기도회(토요일 오전 6시 30분)

10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 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10/11		허도행		
10/18	정경학	송명건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30분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요약

제목: 팩트 체크 본문: 마태복음 28장 11~15절

기도제목: 1.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2.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3.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들어가는 말

가짜 뉴스의 역사는 참으로 오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1923년 1월 일본의 관동 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는 의도적인 유언비어가 퍼져 수많은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던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부활 뉴스를 뒤엎기 위해서 그 당시 가짜 뉴스를 사람들 사이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는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 진실인 것처럼 믿어졌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팩트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부활에 대한 가짜 뉴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잠들어 있을 때 몰래 무덤에 들어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어낸 말들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고 믿기에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믿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였으니 성경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2. 부활에 대한 증거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다는 소문이 있었기에 더 철저한 군인들을 시켜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지도자들은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주장하고 종교지도자들은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주장합니다. 정답은 이 둘 중의 하나입니다. 빈 무덤에 들어갔던 사도요한은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증거하였습니다. 세마포로 시신을 봉대처럼 감았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는 그대로 청결이 된 상태로 시신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꼬치에서 나방이 그대로 빠져 나간 듯이, 예수님의 몸만 그대로 빠져 나갔습니다. 만약에 누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다면 세마포의 형태가 그렇게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주장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의 근거(증거)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따라던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시간까지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가 우리 중에 큰 사람인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실상 제자들의 꿈도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다니게 됩니다. 제자들의 변화! 사도바울의 극적인 변화!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제자들과 사도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숨어 있는 제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목을 쳤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목이 달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변화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뭔가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것입니다.

3. 예수님의 부활과 변화된 삶
나에게도 그와 같은 변화된 모습이 있는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화되기 이전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아직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완전히 믿습니까!라고 고백하면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마음과 힘을 다해 찾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라비 재커라이어스

1. 예수님을 체험하기 -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때, 힘을 다해 찾을 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두들 힘을 다해서 믿고 있습니다. 그냥 힘들이 추겠다!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시간동안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예배		수요예배(8시PM)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여호수아서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23장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1번(이사야 65장)	
찬 송 Hymn	82장	
기 도(Prayer)	1부: 이경희 권사 2부: 허도행 집사	
성 경 Scripture	마태복음 28장 11~15절	
설 교 Message	팩트 체크	
▲ 헌 금 Offering		토요일 오전 6시 30분 당분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찬 송 Hymn	344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